

1인 출판사 창업한 외화 번역가 이미도씨

출판은 출산과 동일, 힘들지만 행복한 작업



이미도

외화번역가, 저술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웨덴어학과 졸업, Air Force 영어교육장으로 복무한 후 외화번역과 저술 병행. 1993년부터 외화번역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450여 편의 작품을 국내에 소개했다. <빅스 라이프> <진주만> <니모를 찾아서> <캐리비안의 해적> <굿 윌 헌팅>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아메리칸 뷰티> <페이스 오프> <더 록> 등을 번역했다. 저서로는 <이미도의 등 푸른 활어영어와 물고기도서관에서 펴낸 <영화백개사전 영어백과사전>이 있다.



외화 번역가 이미도 씨가 출판계에 명함을 내밀었다. 2004년 《등푸른 활어영어》란 책을 선봬 터라 새로운 책을 썼으려니 했는데 이번엔 아예 ‘물고기도서관’이라는 1인출판사를 창업 해 직접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번역은 입양이라고 생각해요. 글을 쓰는 것은 잉태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 번역과 책 집필은 해봤거든요. 그렇게 처음엔 입양만 하다가 잉태를 해보니 이제는 출산까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이디어를 내고 콘텐츠 기획, 집필까지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 책에 관여하게 되는 것도 속상했어요. (웃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출판사를 해보자고 생각했죠.”

그에게 있어 출판은 전혀 생소한 영역이 아니다. 기획, 집필한 책 《등푸른 활어영어》 출간 당시 그는 출판사 영업자들과 홍보활동을 함께 했다. 번역가 이면서도 영화사 관계자보다 더 열심히 관객들의 반응을 살펴왔던 그는 책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독자 반응을 연구한 것은 물론 지방 서점까지 마다 않고 두루 살펴본 덕에 출판 시스템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사람들은 영화를 본 직후에는 영화평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화장실 같은 조용한 장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친구와 수다 떨듯이 감상을 나누곤 하죠. 그런 것이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거든요. 책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서점이나 영업현장에 나가 출판인들과 독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움직이다 보니까 출판계의 흐름을 알겠더군요.”

물고기 도서관 이름을 달고 출간한 첫 책 《영화백개사전, 영어백과사전》의 출발이 경쾌하다. 초판 만 부를 찍었는데 이미 서점 주문이 재고량을 넘어섰다. 덕분에 그는 더 바빠졌다. 저자의 입장뿐 아니라 경영인으로서 애착과 관심이 갈을 수 없을 터다. 기대만큼 반응이 온다는 것이 경영자로서는 기쁘기도 할텐데 그는 별 내색이 없었다. 큰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이라 신중함을 보인 것이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백신”을 맞고 면역력을 키우는 중이었다.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일이 터지더군요. 아무래도 처음하는 일이라 좋은 일 있기 전에 크게 한번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해요.”

책이 예정보다 늦게 독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여러 손해를 입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직거래처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문제를 꼼꼼히 처리했다. 1인 출판의 재미와 노고를 톡톡히 치르면서도 그는 시종 “너무 재밌고 즐겁다”고 말한다.

《영화백개사전, 영어백과사전》은 그가 번역한 영화 중 100편에서 선별한 단어에 영화의 재미요소를 첨가해 엮은 새로운 형태의 사전이다. 익살스런 컬러 삽화를 넉넉히 담아 재미있고 쉽게 읽힌다. 스스로도 “디자인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기획부터 일본 시장까지 염두하고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많이 줄였는데

도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얇은 책만 선호하는 독서트렌드를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얇다고 깊이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외형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깊이 있는 것을 다루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력 넘치는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묻어나온다. 14년간 450편의 영화를 번역한 그에게 있어 영화와 영어는 뗄 수 없는 분야다. 때문에 물고기도서관 책은 앞으로도 영화와 영어를 접목시킨 책들을 펴낼 예정이다. 독자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는 영어책을 선보이고 싶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제가 영어 교육자는 아니에요. 어학 분야의 책만을 고집하는 것이 단점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어학은 나름대로 특화 시킬 수 있는 분야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영화의 재미요소와 영어 공부법을 접목시켜서 ‘영어는 늘 좋아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영어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제 책이 독자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시원하고 솔직한 답변이 당혹스럽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음에 와 닿는 이유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이야기이건 스스로 즐거워서 그 느낌을 전달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는 그만의 여유.

“아직 초보지만 출판이 정말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를 지금처럼 열심히 번역하되 글 쓰는 작업의 즐거움에 잠시 자리를 내줘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글 쓰느라 행복했고 두 번째 책은 쓰고 만드느라 행복했습니다. 이런 재미를 앞으로 계속 지속하고 싶어요.” **한문**

취재 송보경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